

# 다큐·SF·코미디·판타지...장르의 성찬

## 광주극장 1월 개봉 영화

11일 '수면의 과학' 13일 '원더'  
18일 '다키스트' '피의 연대기'

광주극장이 드라마, 다큐멘터리, SF, 코미디,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인다.

11일 개봉하는 '수면의 과학'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테판의 영동 발달한 작사자를 그려낸다. 멕시코 출신의 연기파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 사르르르 캉스부르가 호흡을 맞춰 주목받았고, 프랑스 영화 음악의 거장인 장-미클 버나드가 함께 완성도를 높였다.

영화 '원더'는 13일 개봉한다. 안면기형의 일종인 트레차콜린스 증후군으로 인해 남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어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 '어기'가 처음 만나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전한다. 주인공 '어기' 역은 영화 '롬'에서 천재적인 연기력으로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 신인상 등을 수상한 아역 배우 제이콥 트렘블레가 맡아 또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연기를 선보인다.

18일 개봉하는 '다키스트 어위'는 살아 남는 것이 승리였던 사상 최대의 덩케르크



'원더'

작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40만 명을 구한 윈스턴 처칠의 가장 어두웠지만 뜨거웠던 시간을 담은 영화다.

같은날 개봉하는 '아름다운 별'은 화성인 아빠, 수성인 아들, 금성인 딸, 그리고 지구인 엄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다행성 가족'이라고 깨달은 '오스기 일가'가 지구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다룬 신개념 SF 드라마다. '종이 달',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등의 감독 요시다 다이치지가 개성 넘치는 새로운 연출 스타일로 돌아와 신개념 SF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의 몸'과 '생리'에 대한 범시대적, 범세계적 탐구다큐 '피의 연대기'도 18일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검은 봉지' 안에 숨겨져 온 생리 이야기를 재미 발랄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해외 취재와 방대한 아카이브를 통해, 기나긴 생리의 역사를 탐구하고, 대안 생리용품을 탐험한다.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을 대리 체험하게 해준다.

서울독립영화제2017 새로운시선상, 제8회 광주여성영화제 개막작 선정 등 영화제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ij6621@kwangju.co.kr

# 5060 중장년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노년 치매 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사회생활에서 은퇴하는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 설립되고 노년층의 치매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된다.

핀란드의 '아난탈로'(Annatalo)처럼 폐교나 폐공장 등 지역의 유휴공간들을 문화예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는 2015년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법정계획이다.

'살고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문화예술교육을 성장시키고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년간 정부와 지방 예산을 포함한 총 9500억 원, 올해만 1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 예산 9500억원 투입

## 700개 예술동아리 지원

## 학교 예술강사 처우 개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50~64세 생애 전환기 중장년층을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신설한다. 올해 전국 6곳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시민예술가를 양성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올해는 우선 700개 예술동아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0개씩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eing)과 같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예술강사들의 처우와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예술강사 대표와 문체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마련한다.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버려진 유휴공간을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인 '꿈꾸는 예술터'(가칭)로 조성해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폐초등학교 건물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해서 아동·청소년과 가족에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핀란드 헬싱키시의 '아난탈로'를 본뜬 것이다. 올해는 2~3개소를 설립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 대상도 아동·청소년에서 지역주민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파출소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문화파출소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별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춰 주·층에 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재단 홀로그램 인형극 '어린왕자의 선물' 상영

##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서

## 지역업체·극단이 만든 작품

추억의 인형극과 첨단 홀로그램이 만나 상상력을 이룬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지난 8일부터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의 홀로그램 극장에서 올해 첫 홀로그램 인형극 '어린왕자의 선물'(사진)을 상영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광주 지역 전문업체의 기술

력과 지역 극단의 연출이 만나 이뤄낸 첫 홀로그램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상', '임금님의 사건수첩' 등 영화·드라마의 특수효과를 맡은 광주의 VFX 전문업체 ㈜매그논스튜디오와 아동·청소년을 전문 극단 '극단 파랑새'가 참여했다. '어린왕자의 선물'은 생택쥐페리 원작 '어린왕자'를 토대로 인형극과 최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해 탄생했다. 작품은 우여곡절 끝에 지구별에 도착한 어린왕자가 여우, 비행사와의 만남을 통해 '친구'의

의미를 깨닫고 중요한 질문을 남긴 채 떠나는 이야기다.

원작 소설과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공연도 '어린왕자가 남긴 선물이 무엇일까', '어린왕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갔을까'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상영하며, 인터파크나 티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관람은 전화접수가 필수다. 관람료는 1인 8000원. 문의 062-670-7452. /박성천기자 skypark@

#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LA아트쇼' 참여

## 작품 '만화 병풍' 선 보여

## 올해도 파리 등 해외 전시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미 서부 최대 미술제인 'LA아트쇼'에 참여한다.

이 작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LA아트쇼'에서 '만화 병풍(Cartoon Folding Screen) LEDTV'를 선보인다.

LA아트쇼에는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 18개국에서 100여개 갤러리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만화 병풍'은 동양의 고전 회화를 차용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룩한 인간문명의 의의를 동양적 시선과 만화적 요소를 통해 해석한 작품이다.

특히 '로봇 찌뻘' 등 친숙한 만화 캐릭터들이 등장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가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문명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으로 인간이 이룩



'만화 병풍 LEDTV'

한 문명의 가치를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게 만들며 동양적사유를 이끌어내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올해도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파리, 중국,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헤이

그, 사리에보 등 해외 전시가 계획돼 있으며 18일에는 세계 최대 디지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총연출가 마틴 혼지 강연에서 사회를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월호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18은 전라도 정도 전년의 해  
전라도 방문의 해

**웰컴투전라도**  
Welcome to Jeolla-do

- 그대에게 전라도를 권함  
- 전라도 친년사업, 웅대한 막  
전라도 어디까지 가봤니?

신년 기획-먼저 읽는 우울년  
2018년 무술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들

기획-광주폴리 다시보기-프로그램  
문화자산만들기  
광주폴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노중호의 꿈의 여행기  
'축가사'가 나올 듯한 풍경  
슬로베니아 SLOVENIA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발굴기  
여행과 문화의 연동편  
'도시여행자'

**예향 초대석**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제 인생 화두는 '꿈 너머 꿈'이에요"

**취재의 전서**  
유형 예술품과 진귀한 만남  
국립광주박물관, 왕이 사랑한 보물전

공립 미술관의 길을 본다③  
도시 정체성에 개성을 입다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문장이 쉬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③  
눈 부릅뜨는 시 정신이 산다  
신동업 문학관

해양수산부 공동기획-맛있는 어른여행  
대게마을, 울진 평해읍 거일2리  
싱싱한 굴 맛, 장흥 남포 마을

핀란드 (파라글라이더)  
'위로 한 컷, 추억 한 줄'  
옛날만화 열풍

백국남의 대중문화 지  
연예인 지망생 100만 명 시대

예향이 만난 이 사람  
5·18평론 '메이피플' 작가 공성술  
KIA타이거즈 안방마님 포수 김민식

문화유산, 전장 지닌 순한 땅  
화순 여행  
- 색다른 체험여행  
- 기원과 평안의 마음  
- 맛있고 멋지서 소문난 화순두부